

한국어 이동동사의 인지적 의미 변화 경로에 관하여 : ‘따르다’, ‘쫓다’를 중심으로

조미희*

I. 서론

본고는 한국어의 이동동사에 속하는 ‘따르다’와 ‘쫓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동동사(locomotion verb), 자세동사(posture verb) 등 인간의 신체 및 움직임과 관련된 동사는 의미 변화와 문법화 과정을 겪기 쉽다(Traugot 1982, Van Oosten 1986, Kuteva 1999). 한국어의 이동동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일반적인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해 다룬 임지룡(1996)이나, 이동동사의 의미를 다룬 임지룡(2000), 이종열(1998), 이기동(1977), 고석주(2007), 남승호(2003), 전수태(1986), 채희락(1999) 등이 있다.

그러나 이동동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다’와 ‘오다’에 연구가 한정되었다. 이동 사건을 나타내는 어휘는 훨씬 다양하며, 변이 양상도 다채롭게 나타난다. 어휘의 의미가 일반적일수록 의미의 확장, 나아가 문법화를 쉽게 겪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가다’와 ‘오다’가 연구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하면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따르다’와 ‘쫓다’의 경우 이동하는 준거점을 기준으로 이동 방향을 정해 이동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따르다’와 ‘쫓다’는 빈도가 높고 다른 동사에 비해 여전히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문법화 과정을 통해 접속부사(‘따라서’)나 조사(‘조차’)와 같이 품사를 달리하는 확장 과정을 겪기도 한다. 본고는 ‘따르다’, ‘쫓다’의 경우와 같이 원형의 의미를 공유하지만 의미확장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두 동사를 비교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은유적 의미확장의 토대가 되는 ‘변이 잠재 요소’와 그로 인해 생겨난 ‘의미망’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인지언어학에 의하면, 단어의 의미는 심성 공간(mental space)에서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이루고 있다. 이때 각 의미들은 가장 기본적인 1차 의미가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표상된 원형적 장면(PROTOSCENE)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형태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yler and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Evans(2001)에서는 다의망(polysemy network) 모형을 이용하여 영어 전치사 over 의 의미를 다루었다. 이 방법론에서는 우선 1 차 의미(primary sense)를 상정하며, 1 차 의미에서 개별 구성요소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지를 관찰하여 여러 갈래뜻 사이의 친소관계를 설정하여 그림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때 ‘변이 잠재 요소’란, 원형적인 의미항목에서 명시적·필수적 요소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 사용 맥락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요소이다. 이 요소는 결국 높은 빈도로 활성화되어 은유적 의미 확장의 토대가 된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맥락에 의해 활성화되며, 이미 원형 의미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적 내포라 할 수 있다. 다의어의 갈래뜻(意項, sense)은 이러한 잠재적인 요소들이 맥락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갈라져 나온 것이며, 이들 의미가 모여 언어 화자의 심성공간 속에서 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III. 주요 갈래뜻과 구문

(표 1), (표 2)는 대표적인 국어사전 세 종에 나타난 ‘따르다’와 ‘좃다’의 풀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를 참고하면, 사전마다 파악한 단어의 의미가 다르며, 이들을 하나의 갈래뜻으로 묶어 처리하는 기준도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 (8 개)	연세 (13 개)	고려 (9 개)
<p>[1] 「1」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2」 앞선 것을 좃아 같은 수준에 이른다. 「3」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좃다. 「4」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 「5」 ((‘따라(서)’ 풀로 쓰여))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 「6」 ((주로 ‘따라(서)’ 풀로 쓰여))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p> <p>[2] 「1」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 「2」 ((흔히 ‘따라(서), 따르, 따르면’ 풀로 쓰여))어떤 경우, 사실이나</p>	<p>[1] 1. ㄱ. 남의 뒤를 좃다. ㄴ. [‘따라(서)’의 풀로 쓰이어] (어떠한 행동을) 남을 좃아 하다. 2. 앞선 것을 좃아 같은 정도에 이른다. 3.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붙어다니며 좃다. 4. ㄱ. (관례, 법규 등을 본떠서) 그대로 하다. 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좃다. ㄷ.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좃다. ㄹ. 결정되거나 시키는 대로 좃아 하다. 5. [주로 ‘따라(서)’의 풀로 쓰이어] 길이 나 있는 대로 계속하여 움직이다.</p>	<p>1. (1) [주로 ‘따라(서)’, ‘따르’, ‘따르면’의 풀로 쓰여](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그 기준 따위에)바탕을 두거나 그러한 입장에 의거하다. (2) (사람이 명령이나 의견 따위에)힘입어 그대로 실행하다. (3) (어떤 대상에 다른 대상이)뒤이어 생기거나 더불어 일어난다. 2. (1) (어떤 동물이나 탈것 따위가 다른 동물이나 탈것 따위를)뒤에서 그대로 좃아가다. (2)</p>

<p>기준 따위에 의거하다.</p>	<p>[Ⅱ] 아울러 이루어지거나 함께 생기다. [Ⅲ] 1. [‘~에/을 따라(서), ~에 따른’의 풀로 쓰이어]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의거하거나, 좨아서. 2. [‘~에 따라(서), ~에 따른’의 풀로 쓰이어] (그것에) 비례해서. [Ⅳ] [‘~에 따르면’의 풀로 쓰이어] 의하면.</p>	<p>(사람이 명령이나 의견 따위를) 지키거나 그대로 실행하다. (3) [주로 ‘따라’의 풀로 쓰여](무엇이 강이나 길 따위를) 이어진 모습대로 좨다. (4) [주로 ‘따라(서)’의 풀로 쓰여](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 언행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행하다. (5) (사람이나 짐승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섬기어 따르다. (6) [주로 ‘따를’의 풀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 실력 따위를) 좨아 같은 정도나 수준에 이르다.</p>
---------------------	-------------------------------------------------------------------------------------------------------------------------------------------------------------------------------------	-----------------------------------------------------------------------------------------------------------------------------------------------------------------------------------------------------------------------------------------------------------------------------------------------------

(표 1) ‘따르다’의 주요 사전 풀이

표준 (6 개)	연세 (3 개)	고려 (6 개)
<p>「1」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2」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3」 규칙이나 관습 따위를 지켜서 그대로 하다. 「4」 눈여겨보거나 눈길을 보내다. 「5」 생각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다. 「6」 남의 이론 따위를 따르다.</p>	<p>1. (뒤를) 따르거나 (자취를) 따라가다. 2. (다른 사람의 의사나 어떤 경향 등을) 따르다. 3. (무엇을) 얻거나 (무엇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다.</p>	<p>(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다. (2)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 추구하다. (3)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이나 대세를) 그대로 따르다. (4) (사람이 무엇을) 계속 주시하여 눈여겨 살피다. (5) (사람이 관례나</p>

		풍습을)그대로 따라 하다. (6) (사람이 일어나 기억을)어렵듯한데 하나하나 더듬어 가며 하다.
--	--	----------------------------------------------------------------------

(표 2) '좃다'의 주요 사전 풀이

사전마다 의미 항목의 수에 차이가 있어, 많게는 5 개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사전에서 설정한 갈래뜻의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용례를 하나의 의미 아래 포괄적으로 기술하느냐, 또는 서로 다른 의미 아래 분석적으로 기술하느냐의 차이로 보인다. 한편 가장 다양한 뜻을 기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전을 모두 자동적으로 포괄하거나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를 최대한 세분화한 사전이라도 기술자의 실수로 용례를 간과하여 기술해 내지 못한 듯한 부분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연세>에서 '좃다'의 1 번 의미로 제시된 "(뒤를)따르거나 (자취를) 따라가다"의 경우 구체물을 따르는 의미와, 구체물이 남긴 자취를 따르는 의미가 뭉뚱그려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의미는 목적어의 성격과 그 의미가 다르다. 사람, 동물, 탈것 등의 구체물을 따르는 행위와 자취, 발자국, 흔적 등을 추적하는 행위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으며, [구체물]과 [추상적대상]이라는 목적어 논항의 차이도 있다.

- (1) 기본이 좋아진 아이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를 좃으며 뛰어다닌다.
- (2) 그녀의 행방을 좃기 위해서 그는 민첩하게 방을 빠져나왔다.

이 둘 사이의 의미가교(semantic bridge) 역할을 하는 것은 '~의 뒤를 좃다'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따르면서도, 추상적 위치관계인 '뒤'가 논항으로 제시되는 예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교가 양자를 한 갈래뜻으로 묶을 만큼 강력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두 의미를 분리해 보고자 한다.

<고려>에서 '따르다'의 1 번 의미로 제시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그 기준 따위에)바탕을 두거나 그러한 입장에 의거하다."의 경우, 주어 논항의 유정성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 (3) 금강산은 철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다.
- (4)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의사가 되었다.

두 의미 모두 ‘-에’ 논항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추상적 대상이나 무정성을 가진 구체물이 주어로 쓰인 (3)은 ‘판단의 기준’이 [원인]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 반면, 유정성을 가진 주어가 사용된 (4)는 [이유]에 가깝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의미의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두 의미를 하나로 묶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기존 사전 기술에서 간과한 뜻풀이를 포함하여, 의미를 분류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IV. ‘따르다’, ‘쫓다’의 1 차 의미

우선, 본고는 ‘따르다’의 갈래 뜻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본고는 1 차 의미의 설정 기준을 빈도, 물리성/공간성, 은유적 중심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선별할 것이다.

1) 빈도: 대개 한 단어의 여러 의미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의미가 1 차 의미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말뭉치를 참고하였을 때, 그리고 빈도를 갈래 뜻 배열의 기준으로 채택한 <고려> 사전에서 1 번 풀이로 배치하고 있음을 볼 때, (1)-1 의 의미가 1 차 의미에 해당한다.

2) 구체성/공간성: 언어 단위의 의미는 구체적이며 공간적인 의미가 가장 기본의 의미이며, 이로부터 은유·환유를 통해 나머지 의미도 출된다는 처소주의 가설(localist hypothesis)에 따르면, 여러 갈래 뜻 중 주어와 목적어에 구체물이 사용되어 가장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성격을 가진 (1)-1 을 1 차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3) 은유적 중심: 뒤에서 보듯이, 1 차 의미는 은유적 확장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갈래 뜻이 공유하는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1 차 의미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적 확장 과정은 실제 쓰임을 확인하고 각 의미가 공유하고 있는 성분을 밝힌 다음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본문에서 다룰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본고에서 설정하는 ‘따르다’와 ‘쫓다’의 1 차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따르다’ / ‘쫓다’ 의 1 차 의미: 무엇(1)이 이동하는 무엇(2)의 방향으로 이동하다.

이러한 1 차 의미가 묘사하는 상태에는 적어도 두 개의 참여자가 필요하다. 따르거나 쫓는 행위의 주체인 NP1 과, 이에 앞서 이동하는 물체인 NP2 이다. 즉 ‘따르다/쫓다’가 구성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은 격틀을 가지고 있다.

▶ ‘따르다’ / ‘쫓다’ 의 기본 구문: NP1 이 NP2 를 따르다.

이와 같이 상정한 1 차 의미와 기본 구문에 더하여, 우리는 1 차 의미의 의미성분에 ‘변이 잠재 요소’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한다. ‘변이 잠재 요소’란 1 차 의미의 뜻풀이에 필수적이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빈도로 활성화되어 은유적 의미 확장의 토대가 되는 맥락적 내포(contextual connotation)를 가리킨다. 이러한 변이 잠재 요소를 설정하면 다의어의 은유적 의미 확장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동일한 사태를 지시하는 ‘따르다’와 ‘쫓다’가 각기 다른 갈래뜻으로 용법이 확장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따르다’의 변이 잠재 요소: 무엇이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과 가깝고 동일해지기 위한 것이다.

· ‘쫓다’의 변이 잠재 요소: 무엇이 다른 것을 쫓는 것은 그것을 붙잡거나 소유하기 위한 것이다.

V. 확장 양상

이제 1 차 의미로부터 도출되는 여러 갈래뜻을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한다.

5.1 ‘따르다’의 경우

(1)-1 예) 나는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다.

1 차 의미 <이동>: 이동할 수 있는 무엇(1)이 다른 이동하는 무엇(2)의 방향으로 이동하다.

‘따르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이 의미의 기본 구문은 “1 이 2 를 따르다”이다. 1 은 자기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정물이거나 탈것이고, 2 도 마찬가지로 이다.

논항 1, 2: [구체물, 사람, 탈것]

이 의미에서 논항 2 가 조금 더 확장되면 이동하는 물체가 남긴 흔적, 자취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지 과정인 ‘환유’에 의한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인접성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환유로 인해, 논항 2 의 속성이 ‘움직이는 무엇이 남긴 흔적’이 될 때에도 ‘움직이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쓰임이 반복되어서 ‘흔적’을 나타내는 논항이 사용된 (1)-2 와 같은 용례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다.

(1)-2 예) 나는 범인의 흔적을 따라 갔다.

논항 2: [흔적, 자취...]

여기서 더 확장되면 논항 2 에 움직이는 물체가 전제되지 않고, 이동하는 흔적이 더 중심적인 의미가 되어, 2 에 경로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가 오게 되어 (1)-3 으로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는 부분과, 부분이 모인 전체가 동일시되어 일어난 확장으로, 이러한 확장은 언어에서 흔히 일어난다.

예를 들어, 동사 '깔다'의 경우 '바닥에 카페트를 깔다'와 같이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를 까는 행위와 '말판에 말을 깔다'와 같이 알갱이로 나누어진 무리를 까는 행위가 쉽게 오갈 수 있고, '넘다'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덩어리가 기준선을 넘는 '뺨이 담을 넘다'와, 짐차 쌓여 가득찬 물체가 기준선을 넘는 '물이 독을 넘다'가 쉽게 넘나들며, '두르다'의 경우에도 부분이 모인 전체가 쓰이면 '목걸이를 두르다'로, 부분이 강조되면 '보석을 두르다'로 쓰일 수 있어 부분과 전체가 넘나드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

(1)-3 예) 나는 해변을 따라 걷는다.

논항 2: [경로]

즉 (1)-3 에서는 남겨진 흔적이라는 점들이 모여 이룬 선으로써의 경로가 논항으로 쓰여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1)의 의미들은 논항 1 이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확장되면 이동의 의미에서 벗어난 쓰임이 되는데, 이때 변이 잠재 요소를 도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 ▶ '따르다'의 변이 잠재 요소 1: 무엇이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과 동일해지기 위한 것이다.
- ▶ '따르다'의 변이 잠재 요소 2: 무엇이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과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변이 잠재 요소 1 이 문맥을 통해 활성화되면, (2)와 같은 의미가 파생된다.

(2) 예)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 박수를 쳤다.

의미 <수행>:무엇(2)이 행동하는 것과 무엇(1)이 똑같이 행동하다.

이 경우 논항 1 이 논항 2 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논항 2: [사람]

이때 논항 1 이 행동하는 기준이 되는 논항 2 가 확대되면, 구체적인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말의 내용까지 확장된다. 이 경우 행동의 이유가 되므로 <이유>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2)-1 <이유> 예)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 발표했다.

무엇(2)이 지시하는 것과 무엇(1)이 똑같이 행동하다.

논항 2: [법, 규정, 명령, 유행, 여론...]

한편 논항 1 이 유정성을 갖지 않은 명사로 확대되면, 행위의 의도성이 없어지므로 <이유>보다는 <원인>의 의미에 가까워진다.

(2)-2 <원인> 예)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하다. / 음리 인하여 따른 부작용이 있다.

무엇(2)이 원인이 되어 무엇(1)이 일어난다.

논항 1: [환경오염, 부작용...] 등 추상적 대상

이렇듯 논항 1의 확대에 의해 행동의 의미가 약화되면 반대로 판단의 기준이라는 의미가 더 기본이 되는 용법이 생긴다.

(2)-2' <기준> 예) 이곳에 서식하는 새는 철에 따라 다르다.

‘판단의 기준’ 의미가 기본이 되면, 화자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된 기준, 즉 정보의 출처 의미로 확장된다.

(2)-2-A <출처> 예)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한다.

무슨 출처(2)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무엇(1)을 판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행동의 원인이 되는 (2)-1의 의미는 결국 논항 1과 논항 2의 인과관계를 묘사하므로, 이러한 장면에서 인과관계가 강조되면 행위의 <인과>로 의미가 추상화되기도 한다.

(2)-1-A <인과> 예) 자판을 치는 손이 움직임에 따라 화면에 글씨가 늘어났다.

이 경우 반복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르는 행위 자체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물체를 따라 주어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어휘적 특성이 확장된 의미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1-B <추종> 예) 많은 문파가 스승의 학설을 따랐다.

논항 2가 논항 1의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일회성이 아니라 더 긴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의미로 추상화하면 ‘추종’이라는 행위의 성격을 도출해낼 수 있다.

(2)-3 <동기> 예) 그는 그때그때 욕망에 따라 행동했다.

한편 논항 2가 논항 1의 이동 행위의 동기가 되는 데에서 확대되어, 논항 1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의미도 나타난다. (2)-3에 해당한다.

논항 2: [욕구, 동기, 욕망, 이득...]

한편 변이 잠재 요소 2가 활성화되면, (3)과 같은 의미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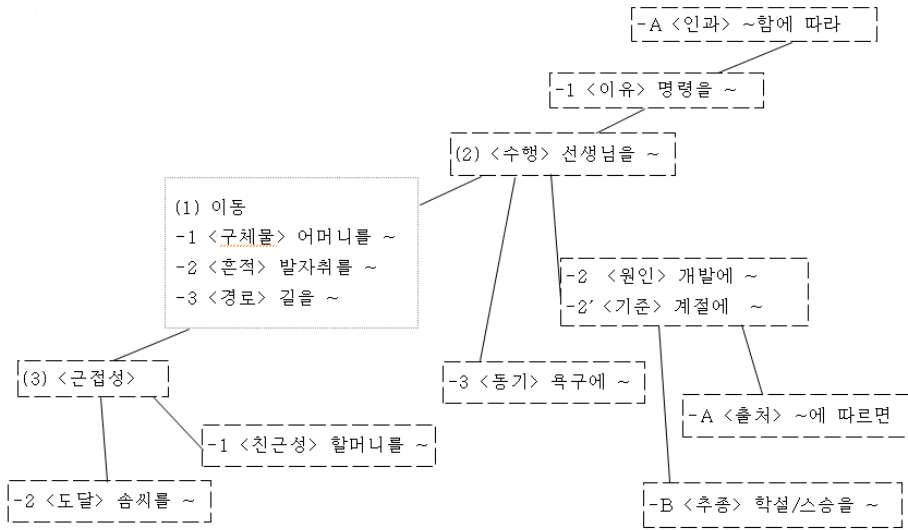
(3)-1 <도달> 예) 그는 음식 솜씨로는 따를 자가 없다.

변이 잠재 요소 2는 ‘따르다’의 결과 생기는 인접성에 의한 확장을 불러온다. ‘따라잡다’와 같은 합성어를 살펴보아도, ‘따르다’와 ‘잡다’가 합성되었음에도 실제 ‘확보’, ‘획득’의 의미보다는 ‘인접’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따르다’의 의미 안에는 어떤 대상을 따른다는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접’성에 대한 의미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인접성은 곧 다른 인접성으로 번져가게 되는데, 그 예가 (3)-1과 같은 예이다. 물리적 인접성이 추상적인 가치의 인접성으로 확장된 것이다.

한편 물리적 인접성이 심리적 인접성으로 확장되면, 친근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3)-2 <친근성> 예) 아이들이 할머니를 잘 따른다.

이와 같이 ‘따르다’의 갈래뜻들은 1 차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파생된 의미들이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따르다’의 의미망

5.2 ‘쫓다’의 경우

‘쫓다’의 경우도 ‘따르다’와 의미가 비슷한 만큼 유사한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인다. 둘 사이의 비교를 위하여 ‘따르다’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 표시를 붙이고, ‘따르다’에서는 나타나지만 ‘쫓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 ◆ 표시를, ‘따르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쫓다’에서는 나타나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 (1)-1 예) 나는 어머니를 쫓아 시장에 갔다.

1 차 의미 <이동>: 이동할 수 있는 무엇(1)이 다른 이동하는 무엇(2)의 방향으로 이동하다.

이 역시 ‘따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 (1)-2 예) 나는 범인의 흔적을 쫓아 갔다.

흔적을 따르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 또한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경로>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 예) 나는 해변을 따라 걷는다. / *나는 해변을 좇아 걷는다.

‘좇다’의 경우에는 ‘따르다’의 (1)-3 에 해당하는 <경로>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따르다’에 비해 <추적>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좇다’의 변이 잠재 요소가 활성화된 의미이다.

◎ (1)-3 <추적> 예) 경찰이 범인을 좇았다. / *경찰이 범인을 따랐다.

즉 (1)-3 은 1 이 2 를 포획하기 위해 좇아 이동하는 것은 장면이 ‘좇다’의 의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이다.

▷ ‘좇다’의 변이 잠재 요소 1: 무엇이 다른 것을 좇는 것은 그것을 붙잡거나 소유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따르다’에서 (2) <수행>의 의미로 나타났던 것과 같은 확장은 ‘좇다’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 예) <수행> 학생들은 선생님을 좇아 박수를 쳤다.

이 역시 ‘따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항 1 이 논항 2 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 예) <이유> 군인들은 명령을 좇아 발표했다.

무엇(2)이 지시하는 것과 무엇(1)이 똑같이 행동하다.

◆ 예) <원인> *개발(에/을) 좇은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논항 1 이 유정성을 갖지 않는 명사에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따르다’의 경우와는 달리 <원인>의 의미로 발달하지 못한다. 그 결과 <기준>, <출처>, <인과>의 의미로도 발달하지 못했다.

◆ 예) <기준> *철에 좋아 사는 새의 종류가 다르다. / ?철을 좇아 사는 새의 종류가 다르다

◆ 예) <출처> *아인슈타인(에/을) 좇으면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한다.

◆ 예) <인과> *자판을 치는 손이 움직임(에/을) 좇아 화면에 글씨가 늘어났다.

◇ 예) <추종> 많은 문파가 스승의 학설을 좇았다.

한편 논항 1 과 논항 2 가 모두 유정성을 가지고 있는 문맥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추종>의 의미로 쉽게 발달한다.

◇ 예) <동기> 그는 그때그때 욕망(을/*에) 좇아 행동했다.

논항 2가 논항 1의 이동 행위를 일으키는 기본 의미에서 확대되어, 논항 1의 행동을 일으키는 의미, 즉 동기가 되는 의미도 나타난다.

(3)의 <근접성>의 확장도 일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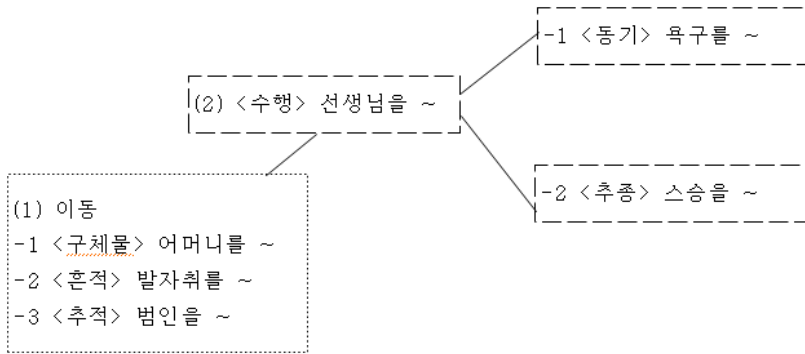
◆ 예) <친근성> *강아지가 주인을 잘 좃는다.

◆ 예) <도달> *그는 음식 솜씨로는 좃을 자가 없다.

본고는 '좃다'가 '따르다'와 변이 잠재 요소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 '좃다'의 변이 잠재 요소 2: 무엇이 다른 것을 좃는 것은 그것과 동일해지기 위한 것이다.

<수행>의 의미 확장은 변이 잠재 요소 2에 의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예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따르다'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의미 확장이 '좃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수행>의 일부 예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도 '-에' 논항이 나타나지 않고 '-을' 논항만이 나타나, 구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1차 의미의 기본 구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수행>의 의미로 확장된 소수의 예는 <이유>, <추종>, <동기>와 같이, 논항 1이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원형 의미에 가까우며 먼저 의미 확장을 일으키고, 추상적인 의미는 나중에 분화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변이 잠재 요소가 문맥적으로 활성화되어 의미 확장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의미 확장이 활발히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이는 같은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따르다'와의 경쟁 관계에 의한 것이다. 두 동사 사이에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의미 확대 양상은 빈도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국립국어원의 현대국어 빈도 조사에 의하면, 2002년 조사에서 '따르다'는 51위 (2,388회)를, '좃다'는 8211위 (20회)를 차지했으며, 2005년 조사에서는 '따르다'가 53위 (4,875회), '좃다'가 1125위 (47회)를 차지했다.



(그림 2) ‘쫓다’의 의미망

‘쫓다’의 경우도 ‘따르다’와 마찬가지로 1 차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파생된 갈래뜻들이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 한국어의 이동동사 ‘따르다’와 ‘쫓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하며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어휘와 의미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도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1.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사전에서는 추상적 의미와 구체적 의미를 한 의미로 묶는 등 불완전한 처리를 해 온 부분이 있다. 이에 유의하여 구체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는 구분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구분을 위해서는 논항을 확인하거나, 액어법을 사용하여 같은 의미로 묶일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유의어라 할지라도 기본 의미에서만 교체되어 쓰일 수 있고, 확장된 의미에서는 교체될 수 없는 예가 있다. 교실에서 어휘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차이를 지적해야만 올바른 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사한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따르다’와 ‘쫓다’의 경우 확장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따르다’는 [(정보의) 출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쫓다’는 갖지 못한다.

3. 친소관계의 설정에 따라 가까운 의미는 묶어서 가르칠 수 있으며, 동음어뿐 아니라 다의어의 경우에도 관계의 친소에 따라 가까운 의미끼리 묶어 교육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의미가 추상화될수록 그 구문 또한 기본 구문과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굳어진 표현은 1 차 의미에서 멀어진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을 따르다’ 문형과 ‘~에 따르다’ 문형을 하나의 어휘 아래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 조사 결합형과 그 연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석주(2007)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 기준점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6
- 남승호(2003)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語學研究』 Vol.39 No.1
- 이기동(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분석」, 『말』, 2
- 이종열(1998) 「'가다'의 다의성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Vol.3
-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 임지룡(2000)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 20.
- 채희락 (1999) 「이동동사의 정의와 분류」. 『현대문법연구』 15.
- Croft, William. (1998) 「Linguistic evidence and mental representations」. 『Cognitive linguistics』 9. pp. 151-174.
- Brugman, C. and George Lakoff. (1988). 「Cognitive topology and lexical networks」. In S. Small, G. Cottrell and M. Tannenhaus (eds.), 『Lexical Ambiguity Resolution』. San Mateo, CA: Morgan Kaufman, pp. 477-507.
- Tyler, A. and Evans, V. (2001) 「Reconsidering prepositional polysemy networks: The case of over」. 『Language』. 77-4. pp. 724-765.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출판부.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On the Paths of Semantic Expansion of Korean Locomotion Verbs

Cho, Mi-hee

This article explores lexical polysemy through drawing semantic network of Korean locomotion verb. Considering a semantic expansion within a cognitive framework, the present study posit that each verb ‘ttalu-’, and ‘coch-’ is represented as a semantic network consist of primary sense and secondary senses. In short, ‘ttalu-’ shows higher frequency and more senses than ‘coch-’ but each verb take a similar path.

Key word: locomotion verb, cognitive linguistics, semantic expansion